

습근평 총서기 연변 시찰 10주년 특별보도(6) - 화룡편

전통과 혁신의 조화로 농업관광문화 새 지평 열어가



장백산 기슭 해란강변에 자리잡은 화룡시는 시대의 동풍을 타고 기회를 다잡아 책임을 다하며 전통 농업의 기반 위에 문화관광이 융합된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

■ 전통 농업과 관광의 결합 - 광동촌의 변신

광동촌에 들어서면 끝없이 펼쳐진 논밭으로 부터 바람 타고 은은하게 안겨오는 벼향기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광동촌은 총면적 7.25평방키로메터에 총 160가구 339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마을로 규모는 크지 않지만 놀라운 발전 에너지를 품고 있다.

지난 10년간 광동촌은 '3차 산업이 2차 산업을 촉진하고 1차 산업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당조직 + 집체경제 + 기업' 협력 모식을 통해 유휴 주택기지를 통합하여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산업을 발전시켰다.

오늘날 광동촌의 '맛있다'(吗西达) 쌀 브랜드는 전국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2024년 마을의 집체경제 수입은 101만 원에 달했고 농민 1인당 소득은 2만 4,000원을 기록했다.

■ '유기농'으로 이끄는 브랜드 - 엘리트 유기농쌀

화룡시 동성진에 위치한 길림엘리트유기농

미업회사(吉林艾利特有机米业公司)에는 갖 정교한 표장을 마친 쌀포대들이 차곡차곡 쌓여져있다. 이 유기농쌀들은 이제 곧 전국 방방곡곡으로 뻗어져 나가 각 지역 시민들의 식탁에 오르게 된다.

알아본 데 따르면 2002년 설립된 엘리트 유기농미업회사는 다년간의 발전을 거쳐 현재 유기농쌀 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했다. 회사는 428헥타르의 유기농쌀 재배단지 와 1,000헥타르의 친환경쌀 재배단지를 보유하고 있는데 '오리 - 벼 공생 재배법'이라는 독특한 유기농 재배 방식을 도입했다.

이곳에서 생산되는 '압천(鴨泉)' 브랜드 '연변 유기농 공미(贡米)'는 투명한 쌀알과 짙은 향기로 국내외에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은 중국 정부기관의 특수 공급품으로 지정된 적이 있으며 과거 올림픽대회 대비 제품으로도 선정된 적이 있다.

엘리트유기농미업회사의 재배기지는 '국가 유기농 식품 생산기지' 등 다양한 국가급 인증을 획득했으며 '압천' 브랜드 역시 수많은 영예를 받아안으며 영향력을 과시했다. 최첨단 생산라인과 완벽한 판매 네트워크를 갖춘 엘리트유기농미업회사는 화룡시 농업산업화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 꼽히고 있다.

■ 산업의 혁신 - 길림상황생물과학기술그룹

길림상황생물과학기술그룹(吉林桑黄生物科技有限公司)의 상황재배기지에는 질서정연하게 배열된 상황버섯들이 온실 안을 가득 메우고 있다.

2014년 설립된 이 회사는 장백산지역 특산품인 상황버섯의 육종, 가공, 판매를 아우르는 종합 과학기술 기업이다. 회사는 리옥원 사연구팀의 기술 지원을 바탕으로 '길황 1호' 균종을 개발하고 대량 재배에 성공하며 전국 상황버섯 생산량의 75% 이상을 점유하게 되었다.

GMP 품질관리 체계 기준의 표준화된 생산 공정에서는 상황자, 상황환 등 다양한 가공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특히 동결 건조 분말 기술 분야에서 국내 최고 수준을 자랑하고 있다. 또한 '상황버섯산업 국가 혁신 연합'을 주도적으로 설립하고 3차 산업이 융합된 발전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회사는 길림성 과학기술진보상 등 수많은 영예를 받아안았는바 수많은 농민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며 화룡시 산업 발전의 새로운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 흥색문화의 계승 - 원봉수로전시관

화룡시 승선진 상천촌에 자리한 원봉수로전시관은 비록 80평방메터에 불과한 작고 아담한 공간이지만 짙은 력사, 문화적 내포를 품고 있다. 전시관 안에 전시되어있는 하나하나의 력사유물은 승선진의 지난날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 전시관은 총 4개의 테마존으로 구성되어 관광객들에게 승선진의 력사적 순간부터 원봉수로 수리시설의 전모(全貌), 노래 <붉은 해 변강을 비추네> 창작 과정, 항련문화와 항미원조 력사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들을 생생하게 담고 있다.

과거의 수리공사는 오늘날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 이 전시관은 흥색문화를 계승하고 민족정신을 고양하는 중요한 장소로 자리매김했는바 수많은 관광객들이 화룡시의 풍부한 문화유산을 체험하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 김영화기자

논밭 위에 펼쳐진 관광 명소 - 광동촌의 10년 발전 비결



7월 9일, 기자가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방문했을 때 푸른 기와와 하얀 담장의 조선족 전통 가옥들이 한눈에 들어왔고 길가에는 '중국 북방 쌀 생산 제일촌'이라는 문구가 새겨진 가로등이 줄지어 서있었다. 광동촌 촌민 김종일은 "10년전만 해도 울퉁불퉁한 흙길이었었는데 이제는 승용차로 집앞까지 썰썰 다닐 수 있게 되었다."며 감회에 젖어 지난 10년간의 놀라운 변화를 소개했다.

화룡시 동성진당위 부서기이며 광동촌당 지부 서기인 김현에 따르면 10년 동안 광동촌은 습근평 총서기가 제시한 방향을 따라 확고한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동시에 '3차 산업으로 2차 산업을 촉진하고 1차 산업을 견인하는' 방식으로 '당건설 + 집체 + 기업' 모식을 통해 유휴 주택기지를 통합하고 농업과 관광이 결합된 산업 프로젝트를 발전시켰으며 친환경 유기농 벼재배를 크게 확대해 '광동촌 쌀' 등 브랜드를 육성, 강화했다.

김현은 "과거에는 재래 방식으로 벼를 재배하다 보니 생산량도 적고 판매가격도 제자리걸음이었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마을에서는 171헥타르의 논을 통합하고 '평강 오아시스'의 자연적 우세를 바탕으로 벼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했지요. 과학기술 도입과 브랜드 구축으로 쌀 가격이 1키로그람당 6원에서 15원으로 뛰었는데도 오히려 물량이 모자랄 정도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료해에 따르면 이 촌에서는 유휴 자원을 통합해 농촌관광을 발전시키고 쌀박물관, 논 게임 파크, 투명재배온실 등 새로운 문화관광 프로젝트를 추가하며 '벼밭관광 + 전통 문화체험 + 연구학습'이 결합된 종합관광을 형성했다.

논둑길 나무잔도를 따라 걸어가 보니 45채의 조선족 특색 민박집이 가지런히 늘어서 있었다.

"이 집들은 그냥 농가였어요. 젊은이들이 다 외지로 나가면서 비어있었는데 민박으로 꾸미면서 지금은 손님들이 끊이지 않습니다."

최근 몇년간 광동촌을 찾는 관광객수는 꾸준히 증가해 2024년에는 약 4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며 436만원의 관광수익을 달성했다.

산업 다각화 발전으로 마을 공동체 수입은 연간 100만 원을 돌파했는데 이는 2015년 대비 10.2배 증가한 수치다. 또한 농민 1인당 수입은 2만 4,000 원으로 3.8배 성장했다.

"수입도 수입이지만 가장 큰 변화는 생활하기 편해진 것입니다."

마을 촌민 김종일은 화장실 개조를 두고 10년전만 해도 마을 전체에 재래식 변소뿐이어서 여름이면 악취가 온 마을에 퍼졌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실내 화장실은 물론 운수기까지 설치되어있으며 자랑스럽게 소개한다.

이 밖에도 광동촌은 '공유 트랙'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주민들이 특색 있는 프

락경제를 발전시키도록 격려하고 있다. 마을 전체의 트랙을 정비해 '한 집 한 개 경관'을 만들고 '작은 공간에서도 소득 증대를 실현하고 있다. 동시에 관광객봉사센터, 생태주차장, 관광객용 화장실, 문화광장 등 공공시설을 완벽하게 건설했으며 도로 포장과 트랙 복화를 통해 '사계절 아름다운 경관, 곳곳이 그림 같은' 새로운 농촌 풍경을 그려내고 있다.

10년간 광동촌은 '중국소수민족특색마을', '전국문명촌진', '전국향촌관광중점촌', '전국민주법치시범촌', '전국향촌치리시범촌' 등 국가급 영예를 받아안았으며 특히 광동촌당지부는 당중앙으로부터 '전국선진기층당조직'으로 공식 지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김현은 푸른 물결 넘실대는 논밭 한가운데서서 무연하게 펼쳐진 벼밭을 가리키며 "광동촌은 앞으로도 습근평 총서기가 가리키는 방향을 따라 한마음한뜻으로 과감히 전진하며 행복한 향촌 건설이라는 새시대의 아름다운 장을 열어나갈 것"이라고 확고한 믿음을 담아 이야기했다.

/ 김영화기자

